김제의 화원군 향사와 실기 소고 (2)

10만 화원군 충헌공 후손께 드림

權載晩
화원군 20대손

▲ 화원군 묘하 모원재의 정당

▲ 모원재의 주련

종정공의 4남 감정공監正公 집덕執德 : 군기감정軍器監正을 지내서 감정공으로 호칭한다. 공의 관함官銜에 대해서 근자에 이설異說이 생기고 있는데, 우선 군기시軍器寺의 정正이라 함은 공을 오래 전부터 '감정공'으로 칭했으니 맞지 않는 소리이다. 만약 공이 군기시의 정이었다면 그 호칭이 '감정'이 아니라 '시정寺正'이었어야 할 것이다. 군자시정軍資寺正일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군기감정軍器監正이냐 군자감정軍資監正이냐의 문제이다. 이는 양자 다 '감정'에는 다름이 없다. 여기에서는 역대 보첩에 명기된대로 '군기감정'을 따른다. 군기감은 고려 시대에는 병영兵營의 조성과 병기의 제조를 맡는 관청이었고 조선조에는 병기·기치旗幟·융장戎仗 등을 제조하던 관청이었다. 이에 비해 군자감은, 고려 때는 공양왕 2년에 군자시軍資寺로 잠시 설치했던 기관으로 군수품의 보관 업무를 맡았던 기관이다. 여기에서 감監과 시寺는 관청의 위계가 같으나 우선 순위에서 시가 감보다 앞선다. 그리고 시에는 당상관 경대부가 판사判事로 겸대하는 직제가 있지만 감에는 대개 없다. 또한 고려 때는 군기감만 있었고 군기시는 없었다. 7대 목종穆宗 때 설치하여 25대 충렬왕 34년, 1308년에 민부民部에 합쳤다가 31대 공민왕 5년, 1356년에 다시 설치했다. 그런데 고려 때는 '정正'의 관함이 없었다. 군기감의 으뜸 벼슬은 '감監'이고 버금은 '소감少監'이었다. 군자시軍寺資는 겸대직 판사判事 밑에 장관으로 윤尹이 있고 차관은 소윤少尹이었다. 따라서 공은 고려 시대에 군기감의 으뜸 벼슬을 아니한 것이 된다. 다만 고려 시대 군기감의 감을 지냈는데 조선조 식으로 호칭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 군기감은 조선조에 들어 태조 1년, 1392년에 베풀어 그 으뜸 벼슬로 정3품 당하관 정正을 두고 다음 종3품관 부정副正을 두었다. 이것이 세조 7년, 1466년에 군기시로 이름만 바뀌어 조선조말까지 왔다. 이로써 보면 공은 조선 태조 2년, 1392년부터 세조 7년, 1466년 사이에 군기감정을 지낸 것이 된다. 한편 조선조에서는 군자시軍資寺는 없고 군자감軍資監만 있었다. 태조 1년, 1392년에 베풀되 본감本監과 분감分監을 두어오다가 21대 영조 때 본감을 없애고 분감만 두었다. 군자감은 군수품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물론 공이 이 군자감정을 지냈더라도 '감정공'의 호칭에는 이상이 없다. 공의 19대손 창현昌鉉이 지은 공의 조부 화원군의 비문에 공이 '중훈대부中訓大夫 군기감정軍器監正'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도 빙거가 되지 않을 수사 없다. 중훈대부는 조선조 종3품 상에 해당하는 품계이고 고려에는 없던 품직명이다. 공이 또한 만년에 처향妻鄕인 경남 합천으로 낙남落南하여 은거하였다는 데에 이의하는 일은 없다.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경사京師를 떠나게 되었는지는 미상이다. 대개 고려말에 벼슬하다가 조선조에 들어 기관하고 낙향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그러나 실은 공이 종정공의 계자季子로서 그 백중숙씨伯仲叔氏보다 연소하여 다소 늦게 조선조에 들어 마지못해 출사하고는 은거구지隱居求志로 기관 낙향하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고려조에 훈벌勳閥로서 초사初仕를 하다가 역성혁명易姓革命을 만나고, 신왕조에 어떤 사정으로든 형식적 출사 협조를 하다가 적당한 시기와 구실을 계기하여 벼슬에서 벗어나 낙향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배위 숙인淑人 강양이씨江陽李氏는 이조판서吏曹判書 휴 의 딸이다. 공의 묘소는 삼가三嘉의 대평리大平里 천동泉洞, 지금의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城里의 천동에 간좌艮坐이고 향사일은 음력 10월 8일이다. 이 묘소가 명당明堂인데, 본디 부인 이씨가 친정으로부터 이 자리를 얻기 위해 기지奇智를 써 밤에 몰래 광중壙中에 물을 길어다 부어 수재水災를 가장해 친정으로 하여금 이를 버리게 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묘하에 지금도 우물이 있고 지명 천동泉洞 또한 이로 말미암았다. 부인 이씨의 묘소는 삼가 고현리古縣里 죽죽竹竹, 지금의 합천군 용주면 죽죽리에 간좌艮坐이다. 공의 묘소의 비문은 후손 삼현三鉉이 지었고, 2010년에 대병면 성리 세거지의 삼산재三山齋 앞에 공의 유허비遺墟碑와 세거비世居碑를 성균관장成均館長 최근덕崔根德의 비문으로 세웠다. 3남을 두니 장자 돈惇은 검교중추부사檢校中樞府事인데 후사가 없다. 검교檢校는 요즘의 고문 또는 명예와 같은 관형어이다. 다음 차남 회恢는 서령署令으로서 증 사헌부 지평贈司憲府持平이다. 3남 촌忖은 문과 지양산군사知梁山郡事이다. 감정공의 후손은 경남 사천泗川·합천·함양·산청·의령·창원·밀양·거제·마산·부산, 전북 고창 등지에 주로 세거하며 인구 5만 5천을 헤아리고 있다. 그 가운데 9할 이상이 양산공 촌忖의 후손이다.

예천군의 장자 남천부사南川府使 총總 : 통정대부通政大夫 남천부사南川府使이다. 남천南川은 경기 이천利川의 옛 이름으로 고구려 시대 지명이며, 고려 공양왕 때만 이를 고을 이름으로 사용하고 조선 태조 2년, 1393년에 이천으로 환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공은 공양왕 1년, 1389년부터 공양왕 4년이자 조선 태조 1년인 1392년 사이에 남천부사에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의 세종 12년, 1430년 4월 24일자에 실린 공의 사위 춘정春亭 변계량卞季良의 졸기卒記에 공이 철원부사鐵原府使로 나온다. 그리고 고을 수령守令으로서의 부사府使는 조선조의 직제이다. 고려조의 부사는 개성부開城府와 지사부知事府의 으뜸 벼슬만이 있었다. 배위 숙부인淑夫人 개성왕씨開城王氏는 동원군東原君 여瑹의 딸이고 묘소는 충북 청원군 오창면 백현리 산8번지 비태산比台山에 합폄이다.

4남1녀를 두니 장남 상온尙溫은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軍器인데 손자대에서 후사가 끊겼다. 다음 상량尙良은 판관判官인데 증손의 대에서 후사가 끊겼다. 다음 상공尙恭은 지군사知郡事로서 증호조참판贈戶曹參判이다. 4남 상검尙儉은 화성위花城尉로서 조선 태조의 제5녀 숙신옹주淑愼翁主를 상尙하였다. 태조가 태상왕으로서 친필 이두문吏讀文으로 태종에게 내린 옹주를 위한 조선조 최초의 가옥급여문서家屋給與文書로서 '숙신옹주가대사급성문淑愼翁主家垈賜給成文'이 보물 제515호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 내용에 옹주에게 줄 집터는 서울의 '동부東部 속향방屬香坊에 있는 재신宰臣 허금許錦의 터'라고 명기되어 있다. 사위는 밀양인密陽人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대제학大提學 문숙공文肅公 변계량卞季良이다.

이러한 남천공 총의 후손은 경기의 이천, 충북의 음성·괴산, 경북의 문경·의성·예천, 전북의 정읍 등지에 세거하고 있다.

예천군의 차남 목사공牧使公 수綏 : 관직이 목사牧使이다. 묘소는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송라동 화봉花峰의 선고 예천군 묘소 아래 자좌子坐이다. 배위 거제반씨巨濟潘氏는 선서승繕署丞 사구思矩의 딸이고 묘소는 예천 도경리道京里에 자좌子坐이다. 1남2녀를 두니 아들 경온敬溫은 문과 감찰監察이고 사위는 소윤少尹 김안생金安生, 선산인善山人 군사郡事 김인안金仁安이다. 그 후손은 경북의 예천·의성에 세거한다.

예천군의 3남 부孚 : 진사進士라고 하나 보첩에 배위 등 일체의 주기注記가 없다. 그 휘도 형제가 모두 실사 변을 쓰고 있어 혹 초명은 부 인데 무슨 연고로 실사변을 떼어내고 부孚로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1남 익례益禮가 있다. 후손은 경남 김해에 세거하고 있다.

예천군의 4남 참찬공參贊公 완緩 : 고려 우왕禑王 8년, 1382년의 문과에서 진사進士로 급제하고 관직이 의정부 참찬參贊에 이르러 조선 태종 17년, 1417년 1월 17일에 졸했다. 조선왕조실록에 공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온다. 태종 6년, 1406년 2월 10일에 대언代言으로 나오고, 9월 12일에 왕의 포천·철원 사냥에 우대언右代言으로 수행하며 이듬해 1407년 2월 24일에도 우대언으로 나온다. 6월 18일에는 호조참의를 겸하고 7월 24일에 좌대언으로 승진하며, 9월 24일에는 사신가는 세자 일행을 왕이 내리는 술을 가지고 가 전송한다. 태종 8년, 1408년 4월 25일에는 예문관 제학提學으로서 금강산을 유람하는 중국 사신을 접반하고, 9월 29일에는 경대부 우군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의 관함으로 계품사啓稟使가 되어 명나라에 간다. 이듬해 1409년 2월 19일에 중국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돌아와 복명復命하는데 대통력일大統曆日과 권선서勸善書 3백권을 가져왔으며, 4월 19일에는 다시 예문관 제학으로서 노비 6구口를 받는데 이는 태종의 '잠저潛邸 때부터 정성으로 충성하고 사명使命을 받들어 중국에 가 황제를 전대專對한 노고 를 포상한 것이었다. 6월 4일에는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로 승진하는데 9월 3일에 권신權臣들의 붕비朋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내심을 누설했다 하여 파직된다. 태종 11년, 1411년 12월 7일에 서용되어 경기도 도관찰사都觀察使로 나가고이듬해 1412년 6월 23일에는 새로 태어나는 왕자를 궁 밖에서 양육할 사람의 물망에 오른다. 7월 9일에 수조收租를 잘못한 일로 순금사巡禁司에 수계囚繫되나 전임자의 실책임이 밝혀져 복임하고 10월 10일에 공안부윤恭安府尹이 된다. 12월 12일에는 판원주목사判原州牧事로 나가고 이듬해 1413년 6월 5일에는 판원주목으로서 제주提州에 모여 주연을 벌인 일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태종 16년, 1416년 3월 8일에는 전판원주목사로서 전의감典醫監에 불량 소합유蘇合油를 납품한 일로 연루되고 3월 12일에 의금부에 하옥되며 20일에 외방外方으로 유배된다. 21일에 양사兩司가 중죄를 청하고,4월 6일에 대사헌이 중벌을 청하며 4월 13일에 양사의 상소로 관작이 삭탈된다. 5월 23일에 외방부처外方付處에서 자원거주自願居住로 풀렸으나 6월 4일에 안성부원군安城府院君 이숙번李叔蕃이 탄핵되면서 그 당여로 몰리고 6월 27일과 7월 8일에 지신사知申事

8면으로 계속